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성** 술직·대담한 性

사랑의 행위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20대 중반의 강씨는 두 달 전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아가씨와 잠자리를 하였는데, 상대방도 회사원이요 해서 특별히 성병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성기에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겨서 혼자 치료하다 진전이 없어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김씨는 매독으로 판명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가, 발기부전 치료제의 등장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으로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성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진단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미룬 경우도 늘고 있고 매독, 클라미디아, 성기포진처럼 자주 반복되는 질환들 역시 증가 추세다.

최근 매독 등의 성병이 확산되는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자유방만한 성생활 및 음성적 성매매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독에 걸리면 10~180일 후에 궤양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후 2~30년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자신이 매독에 감염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병이 주변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매독은 직접적인 성행위 즉, 정상적인 성교나 구강 또는 항문성교 등에 의해 대부분 상대방에게 전염되며 일부는 키스나 수혈 등에 의해서도

전염된다. 증상이 전혀 없는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아의 수직 감염에 의해 신생아에게 매독을 물려주거나 기침을 흘리기도 한다.

매독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감염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혈액 내에 항체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완치되더라도 항체가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매독검사에서 항상 양성반응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정밀 검진을 해야 한다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게 되며, 완치하고도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 자체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또한 매독은 다른 성병과 복합되어 감염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에이즈 같은 치명적인 질환과 같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에이즈 환자의 상당수가 매독 환자라는 연구결

과도 있다. 매독은 성접촉질환으로 성접촉질환은 비교적 치료가 간단한 질환부터 에이즈 같은 치명적인 질환까지 다 포함된다. 성 상대방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질환의 경중을 떠나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성병 예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분별한 성관계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성접촉은 되도록 피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모든 성병을 예방할 수는 없으나 감염확률을 줄일 수 있다.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거나 성병이 의심되는 상대와 접촉을 했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성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런 성병의 여부는 단순한 소변검사나 건강검진으로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확실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매독은 성관계를 통하지 않고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감염된 경우에는 성 상대방에게도 알려 적극적인 치료에 이주하기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성인이라면 성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명비뇨기과원장)

리빙 센스

살림 재활용하기

◇구두굽 오래되고 낡은 물건을 버리게 될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모아두는 것이 살림의 지혜다. 특히 남자 구두의 뒤축은 가구를 고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바닥이 고르지 못해 가구가 흔들릴 경우 고무로 만들어진 구두 뒤축으로 고아 놓으면 바닥도 상하지 않고, 가구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김빠진 사이더 꽃병에 사이더를 부르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 꽃이 물을 잘 빨아들여 싱싱함이 오래 유지된다. 사이더를 차갑게 해서 부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 또 김빠진 플라는 고기 찌 낼 때 넣으면 고기를 연하게 하며 번기가 육조, 세면대를 청소할 때 조금씩 흘려가며 닦으면 목은 때가 제거된다.

함께 풀어봅시다 <321>

321 Crossword puzzle grid.

321 Crossword puzzle clues in Korean.

<함께 풀어봅시다 320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문정국·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변경훈·전남 완도군 완도읍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가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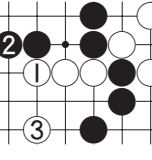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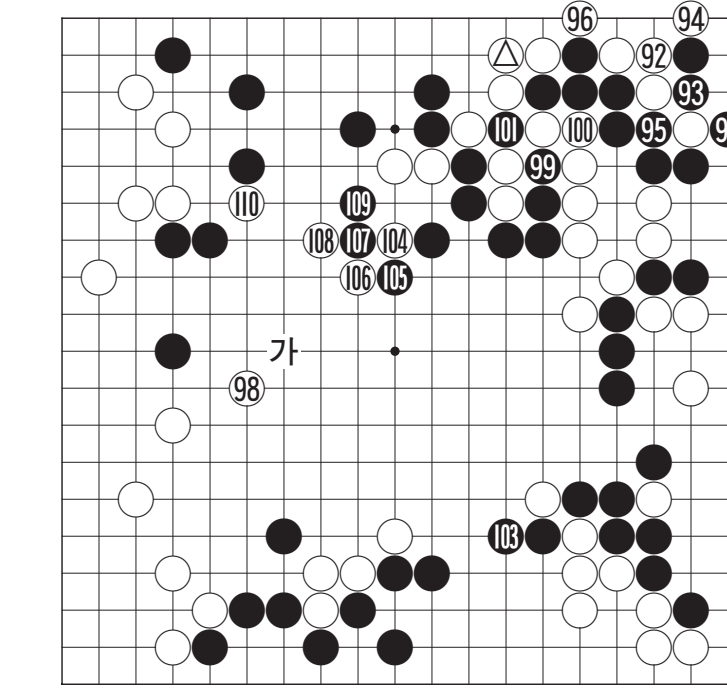
1.사람들을 한곳으로 모으거나 모일, 전원 ~! 병력이 떨어지지 얼마 되지 않아 8천 명의 군사가 ~했다. 3.도시의 주택이나 건물이 많이 늘어서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투. 6.시간적인 간격을 이르는 외래어. 야구에서 투수의 투구 간격을 이르는 말. 저 투수는 ~이 너무 길다. 7.물건이나 작품의 좋고 나쁨을 평하는 모인. ~가 끝날 때까지 작품을 내놓은 그는 긴장을 풀지 못했다. 9.문제의 해답을 쓰는 종이. 11.어떤 사람이 태어난 집. 유명한 사람들의 ~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13.일이나 행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여 나감. 또는 그런 경향. 사태의 ~를 살피다. 14.의학에서 가슴부분을 이르는 말. ~외과. 15.직업을 바꿈. 그들은 여제까지의 발을 갈지 않고, 그곳에 대신 벽돌 공장을 세우구나 그것도 아니면 북덕방으로 ~을 해 버리고 말았다. 16.권력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 17.속도의 크기. 또는 속도를 이루는 힘. 기차는 서서히 ~를 늦추기 시작했다.

↓ 세로 풀이

2.공동으로 협력하여 만든 작품. 이 그림은 우리 반 학생들의 ~이다. 3.영화나 광고 등을 일반에게 미리 공개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상영하기 위한 모임. 4.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 보지 못한. 또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어 본 일이 없음. 그곳에는 ~의 비경이 펼쳐졌다. 5.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잘 자라도록 불필요한 나무를 솎아 베어냄. 8.음악, 미술 또는 사물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비평하고 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그의 직업은 미술 ~이다. 10.결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 할머니는 ~를 짚고 겨우 일어서신다. 11.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인 나에게 잘 대해 주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다. 12.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가공하여 유용한 물자를 만드는 산업. 13.물체를 밀어 앞으로 내보내는 힘. 그의 장점은 저물적인 ~이다. 15.전쟁에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가상적으로 연결한 선. 동부 ~ 이상 없다.

노리던 선수 끝내기

개인전 준결승 7보(92~110)



<참고도>

후수를 갠내하며 백 △로 막아 놓았던 것이. 흑 93은 쓰러지지만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곳이며 흑 93까지 막 두집을 내고 살았다. 선계승 6단은 맛있게 선수 끝내기를 해치운 다음 느긋하게 백 98로 두며 약간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집으로는 백도 할 만한 형세가 된 것이다. 지금이 중반전의 고비로 중요한 장면인데 심재욱 6단은 속고 끝에 103으로 맞좋은 곳을 놓았다. 그러나 이 수는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상반 쪽이 포인트로 이 수로는 '가'에 두어 상반을 키워가고 싶다. 선계승 6단이 즉각 104로 움직인 것은 바른 방향이다. 104로는 '참고도'의 1로 밀고 3으로 백 두집을 살려낼 수도 있었다. 백 110으로 끊어진 것이 선 6단의 노림수다. 본국 최대의 승부처를 맞이한 장면이다. 102~되따름. <오규철 9단·본보 비특 해설위원>

Logos for '대한주택공사' and '엘도라도'.

Column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with dates and brief description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English, Japanese, and Korean. Each column includes a topic, a short text, and a list of vocabulary/grammar points.